

2011.01.31 미래정책연구실

□ 주요 곡물가격 양우 40년 이내 2배로 증가

1. Financial Times(2011.01.24) 주요 내용

- 영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포어사이트(Foresight)는 "세계 식량과 농업의 미래: 지속성을 위한 도전과 기회"라는 보고서를 통해 향후 40년 이내 주요 곡물 가격이 50~100%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.
 - 이 보고서는 35개 나라에 4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작성된 것으로 지난 수십년과 달리 농업 생산성 증가가 급증하는 식량수요를 따라가지 못 할 것이라고 예상함.
- 포어사이트에 따르면 기아문제가 전 세계 정치적 현안으로 부각되지 않은 현재에도 약 9억 2,500만 명이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, 약 10억 명은 필수영양소 부족으로 '감춰진 기아(hidden hunger)'의 위협에 처해 있음. 반면 약 10억 명은 음식물 과잉섭취로 비만과 관련된 만성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음.
- 세계인구가 90억 명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아문제를 없애기 위한 "농업혁명"이 필요하다고 포어사이트는 주장함.
 - 이를 위해 유전자 변형농산물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생산력 강화 (sustainable intensification)가 필요하다고 주장함.

지속가능한 생산력 강화란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에너지와 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경작 가능한 46억 ha의 땅에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는 것임.

- 포어사이트는 전 세계적인 식량공급 부족문제 외에도 3개의 주요 이슈를 지적함.

1) 지속가능하지 않은 농업에 대한 문제

- 현재 세계 식량시스템은 자원의 소모 속도가 자연에서 다시 보충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식량 생산 방식을 지속가능한 영농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 제기

2) 푸드체인(food chain)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량손실 및 낭비 문제

- 경작되는 식량의 30~50%는 유통과정에서 손상되거나 버려지고 있어, 2050년까지 유통과정에서 버려지는 양의 50% 가량 줄이는 것을 실현 가능한 목표로 제안함.
- 현재의 식량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는 것은 2030년까지 80억 명이 지속적이고 균등하게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기여

3) 국제 식량 공급 및 교역 체계

- 세계 식량시스템의 관리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무역장벽이나 보조금 등을 줄이는 것을 제안함.
- 2007~2008년 식량위기 당시 각국의 무역제재가 오히려 충격을 가중시키고 가격 변동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1억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에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함.

- 영국 환경부 장관인 캐롤라인 스펠먼(Caroline Spelman)은 "농업혁명의 가속화를 위해서 농업시장 개방을 통한 무역확대와 최빈국의 농업개혁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"고 주장함.

2. 시사점

- 지난 5일 FAO의 12월 식품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발표에 이어 이 같은 보고서까지 발표됨으로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음.
- 주요 곡물가격 상승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생산력 강화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푸드체인 및 농산물 교역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함.

□ 호주, 홍수에 따른 농작물 피해로 인플레이션 압박

1. Financial Times(2011.01.24) 주요 내용

- 호주의 퀸즐랜드, 뉴 사우스 웨일즈와 빅토리를 강타한 50년 만의 폭우로 인해 수천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거나 식량작물이 큰 타격을 입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.
 - 이번 홍수로 인해 농업생산액은 약 A\$(호주달러) 6억이 감소할 전망이며, 석탄수출액은 약 A\$ 23억이 감소할 것으로 호주정부는 전망함.
- 또한 이번 홍수로 인한 식품 및 상품 가격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음.
- 시드니 플레밍톤 마켓(flemington market)의 과채 도매상인 Bill Chalk는 “이번처럼 극심한 폭우는 본 적이 없으며, 이번 폭우는 가뭄보다 더 심각하게 농업분야에 영향을 줄 것이다”고 주장함.
 - 또한 Bill Chalk는 이번 홍수로 인해 토마토, 브로콜리와 망고의 가격이 50~75% 가량 상승했다고 언급함.
- 시드니에 Cafe Downing 매니저인 Stan Solomou는 “신선 농산물의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5% 증가하였다”고 주장함.
 - 이로 인해 감소한 이익을 보충하기 위해 청량음료와 커피와 같은 음료의 가격을 증가시킴.
- 동남아시아, 유럽과 중동에 야채와 과일을 수출하는 Bob Watt는 “호주달러의 강세로 인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었다”고 주장함.
 - 이번 홍수 때문에 시장에서 질 좋은 상품을 찾기는 어려워졌으며, 소비자는 달러강세로 인해 10~20% 더 지불하고 있음.
- 퀸즐랜드 지역 농민들의 경작지는 물에 잠겨있으며, 일기예보에서는 3월 까지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앞으로 얼마동안은 가을·겨울 작물 파종이 힘들 것으로 보임.

*자료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